

“고국서도 U대회 홍보 역할 톡톡히 하겠습니다”

U대회 조직위 주관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 외국인 참가자들

시청 야외스케이트장·박물관·충장로 쇼핑 등 첫 광주 나들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U대회 특파원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10일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에서 만난 전세계 청년 32명은 피부색과 쓰는 언어는 달라도 ‘스포츠’라는 공통된 주제로 하나가 돼 있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대만·파키스탄·호주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분방지역이나 저개발국가 출신으로 스포츠를 통해 교육·사회봉사·인문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는 청년들이다.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조직위가 공동 주관하는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YLP·Youth Leadership Programme)’ 참가자는 오는 13일까지 호남대 문화스포츠파크에서 U대회의 주제인 스포츠 리더십·평화·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난 3일 광주에 내려와 스포츠 리더십, 태권도·축구 실전 연습에 참가했던 이들은 이날 처음으로 광주 나들이에 나서 야외스케이트장·국립광주박물관·충장로 쇼핑거리 등을 체험했다.

이들의 일정은 여느 때처럼 스케이트장에서 ‘단체 셀카’를 찍는 것으로 시작했다. 정은(고려대 체육학 4년)씨가 ‘컴온(Come on)’이라고 외치자 나머지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씨의 스마트폰 앞에 모여 동작을 취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옷매무새와 스케이트 장비를 돌보며 스스로 일일강사로 나섰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데안드라(여·22)씨는 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SNS친구들에게 보여줄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 현지 생방송을 하는 것처럼 스케이트장을 찾은 소감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1기 YLP 출신인 데안드라씨는 광주에서의 인연을 잊지 못해 올려는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참가했다.

베트남 태권도연맹에서 인턴활동을 하는 손남(25)씨는 13살 때부터 태권도를 연마해 온 실력자다. 손씨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중추국인 한국에 꼭 한번 와보고



10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YLP 참가 청년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 제공>

싶었다”며 “YLP에 참가하면서 한국이 태권도뿐 아니라 양궁, 축구, 역도 종목에도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특히 이 지역 출신 기보배와 기성용의 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전 처음 신어본 스케이트화를 ‘하이힐’을 신은 것 같으며 익살을 부린 세레바시오(23·피지)씨는 케이팝(K-pop)의 열혈 팬이다. 윈더걸스의 ‘Tell Me’ 열풍이 분 7년 전부터 그는 춤 학원 강사로서 ‘케이

팝 전도사’가 됐다. 세레바시오씨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U대회 강연 대회 ‘EPICS(에픽스 포럼)’에서 YLP 참가자 전체가 선보일 공연 안무를 맡았다. U대회로 전세계 청년이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배경음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공식 주제곡 ‘We Are the One’을 선택했다. 그는 이번엔 장작한 안무를 고국에 돌아가서 가르칠 계획이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4 달맞이 00:00
해질 18:10 달뜨기 11:05

오후 한때 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 있었다. 예상강수량 5mm미만.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맑음	0/9	보성	구름맑음	-4/10
목포	가름흐리고	2/10	순천	구름맑음	-1/11
여수	구름맑음	2/10	영광	가름흐리고	-2/9
나주	가름흐리고	-2/10	진도	흐림	-1/11
완도	흐림	1/11	전주	가름흐리고	-1/10
구례	구름맑음	-4/10	군산	가름흐리고	0/9
강진	흐림	-3/11	남원	가름흐리고	-4/9
해남	흐림	-3/11	홍산도	흐림	5/10
장성	흐림	-1/11			

◇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60
빨래	7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 0.5~1.5	
남부 먼바다	남서~서 1.5~2.5	남서~서 1.0~2.0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5	
서부 먼바다(동)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먼바다(서)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22 18:32	11:33 23:54
여수	밀물	썰물
	00:59 13:14	07:03 19:20

◇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	☀	☀	☀	☀	☀	☀
-2/5	-2/7	-1/10	0/10	2/7	-1/9	-1/10



친구들과 ‘추억남기기’ 10일 졸업식이 열린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비아중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합장 선거 상대 후보 차량 고의 추돌 사고 의혹

광양경찰 50대 입건 조사

광양경찰은 10일 여수 울촌농협 조합장이 모는 차량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광양시 중마동 M모델 앞에서 울촌농협 조합장 A(64)씨가 모는 SM5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모델 앞에서 1시간 가량 정차하다가 A씨가 모델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자 뒤에서 들이받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아울러 강씨가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울촌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친척으로, 후보 동생(53)도 조수석에 동석한 사실 등을 토대로 조합장 선거와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검찰 “구조 의무 이행 안한 승무원 살인죄 적용해야”

세월호 항소심 첫 공판

10일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승무원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적극 설명했다. 검찰은 이준석(69) 선장,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기호(54)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승객들의 사망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험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해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민 법 감정과 기초 상식에 비해 승무원의 살인 책임을 묻고 낮은 형량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경유 푸른길 훼손 논란

시 “공사비 절감·교통대란 경감 등 불가피한 일”

환경단체 “10년 넘게 조성한 숲…설계 변경해야”

신규 건설이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 부지에 도심속 푸른길이 포함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푸른길지킴이 시민연대는 10일 “2호선 건설로 푸른길이 파헤쳐져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시민이 만든 도심속 푸른길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푸른길은 지난 2000년 폐선된 경전선 철로를 활용, 나무와 꽃 등을 심고 가꾼 길이다. 이번에 훼손 논란이 제기된 구간은 남구 백운광장에서 동구 서석동 조선대 치과병원앞 2.8km 구간이다.

이곳은 높이 4~6m, 지름 16cm 안팎의 느티나무와 단풍, 동백나무 등 2800여그루의 수목이 식재돼 있어 시민들의 쉼터와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았다.

2호선 기본계획상 이 구간은 인접한 7~8차로인 대남로 대신 푸른길을 따라 철도 공사가 진행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공사비 절감에다 상대적으로 쉬운 공정, 교통대란 경감 등 기존 계획을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푸른길 구간 중 2.8km만이 녹지 구간(푸른길)을 지나고 나머지는 대남

로 기존 차로를 활용하는 등 푸른길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푸른길에 심어진 나무를 뽑고 다시 심게 되는데 토심(土沈)이 평균 5.2m 여서 식재와 생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푸른길 측은 그러나 “전체 공사비 2조원의 2%에도 못 미치는 384억원만 추가하면 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푸른길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설계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사업비 1조9053억원이 투입돼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일곡~침담~수완을 연결하는 총연장 41.9km의 노선을 지하 저심도 굴착 방식으로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건설한다. 1단계 구간(시청~백운광장~광주역)은 올 상반기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이 제품은 의료가 아니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36-0110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 첫째, 한달 3~4만원!!
- 둘째, 전부 무료
- 셋째, 맞춤 귀속형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1회 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242,000원입니다.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창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www.maxo.co.kr